자기소개 수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위미은 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고 Phnom Penh 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네 명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KOSIGN 에서 근무하는 웹 개발자입니다. 지금은 비즈플레이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computer science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HRD center 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HRD center 를 졸업한 후에 Kosign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로, 한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에는 방문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처음 도착한 날, 저는 긴장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읽을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재미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예뻐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또 한국에는 높은 building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방문한 장소는 부산에 있는 남포동 길거리 음식, 다대포해수욕장,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입니다. 그곳에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경복궁, 남산, 명동 한강, 올림픽공원 갔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김치찌개와 마라탕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았고,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요리, 청소, 한국어 공부, 가족 통화, 드라마 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KOSIGN 으로 돌아가면 후배들에게 합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좋은 추억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기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